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투자전략 | 2026.01.16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Weekly

Analyst 신얼 | 투자전략 02-3779-3184, e.shin @sangsanginib.com

Analyst 김경태 | 글로벌 전략/디지털자산 02-3779-3427, kt.kim@sangsanginib.com

Analyst 최예찬 | 원자재/외환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RA 강혜성 02-3779-3475, hs.kang@sangsanginib.com

상상인증권

CONTENTS

한 눈에 보는 상상인 자산전략

Summary 3

1. 주식 6

2. 채권 10

3. 부동산 11

4. 디지털 자산 12

Summary

주간 자산시장 동향 & 체크포인트

유럽으로 가는 트럼프, 그의 말과 행동에 시장 민감도 확대

강약 재료의 뚜렷한 우열 확인 개시

연초 자산별 내러티브의 정립 구간을 지나서 호재 및 악재의 우열이 가려지고 있다. 증시의 완만한 상승과 대조적으로 채권시장은 여전히 터널 속에 갇혀 있다. 귀금속 수요는 쉬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은 이란 유혈 사태에 대한 미국이 취할 태도에 대한 전망이 가격 변동성을 자극 중이다. 미 달러화는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타 기축통화 대비 안전자산의 성격이 부각되며 100pt에 근접하는 등 수요가 높다. 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원화 절하에 대한 우려 발언이 전해졌고, 이는 강달러를 제어해줄 수 있는 타 통화의 절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각각의 재료가 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화됨에 따라 동 흐름의 추세화 여부를 판가름하는 1월 중하순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뉴욕 증시 순환매 구도 진입 이후 맞이할 실적 발표 시즌

S&P500은 7,000pt를 목전에 두고 있다. 1/5일 이후 6,900pt 레벨에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바, 이는 월가 은행의 실적 발표가 개시되면서 정책, 국제 정세에 더불어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판단까지 수반되어서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AI발 증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무차별적 상승 동력이 아닌 확실성이 두드러진 메모리 반도체, 전력 에너지, 유통 업종 등에서 상승 압력이 분출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개입, 관치, 사법적 이슈 등은 이에 따른 업종 및 종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양극단으로 구분되는 흐름을 자아내고 있기에 투자자의 수익률 추구 스탠스는 일부 후퇴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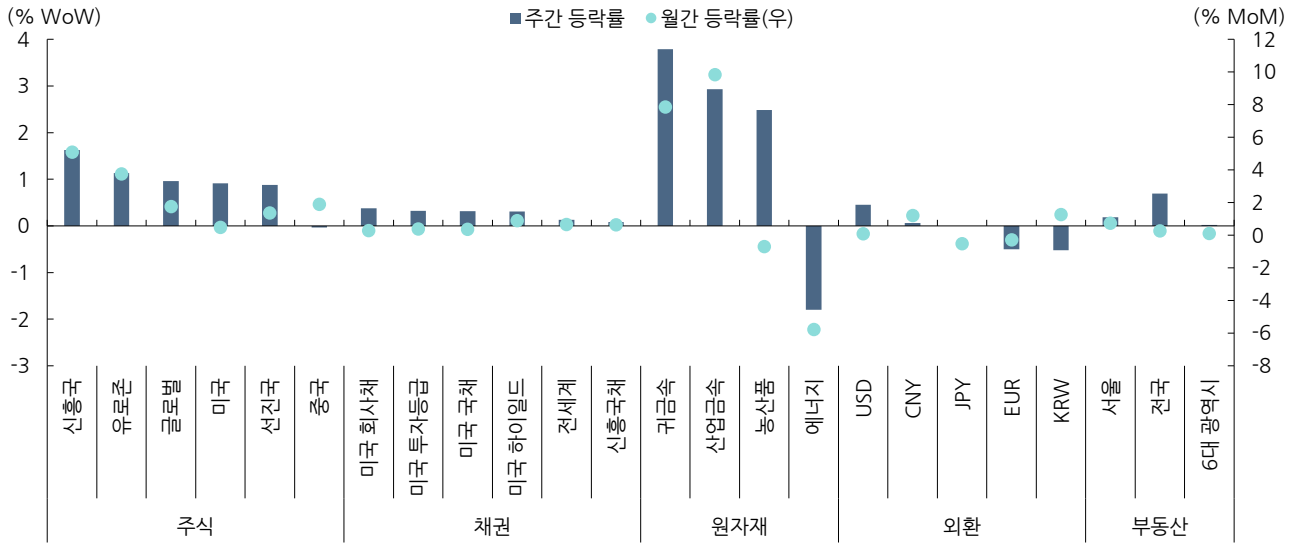
꺾이지 않는 강달러 미국 당국의 고민은 연준에 대한 압박

미 달러화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상승 속도는 일부 후퇴했으나, 강세 기조는 유효하기에 타 통화 절하로 이어지고 있다. 미 법무부의 파월 의장 기소는 연준 독립성 침해 우려를 자극했고, 전직 연준 의장 뿐만 아니라 베센트 장관 마저도 이에 사법적 행위 자체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달러 수요는 강력한 미국의 성장 동력, 지정학 불확실성 및 안전자산 성격 등에 의해 견조하다. 여기에서 미국 당국의 고민이 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데, 강달러는 이에 대한 방해 요인이다. 연준 금리 인하 추세가 뚜렷해야 하나, 사법적 이슈에 의한 양 진영의 충돌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아킬레스건과 다를 바 없다. 당분간 채권시장은 주식 대비 낮아진 기대수익률과 더불어 통화정책 경로 혼란에 의해 박스권 흐름 속 밋밋한 수익률 시현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으로 향하는 트럼프 그의 입에서 나올 코멘트가 미칠 파급력에 대한 자산별 판단 기준

1월 19일 주간에는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와 함께 AI 관련한 실적 발표가 시장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열릴 〈2026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예정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러-우 전쟁의 종식을 위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유럽 국가들에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란드를 두고 덴마크와의 협의를 비롯한 대화도 이어질 것이다. 이란 사태는 강력한 경고성 발언이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영토, 에너지를 포함하는 패권에 대한 이슈이기에 미국 스탠스에 따라서 증시의 업종별 로테이션을 자극할 것이며, 이는 산업금속, 귀금속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화) 넷플릭스, 21(수) 테슬라, 22(목) 인텔 실적 발표도 주목해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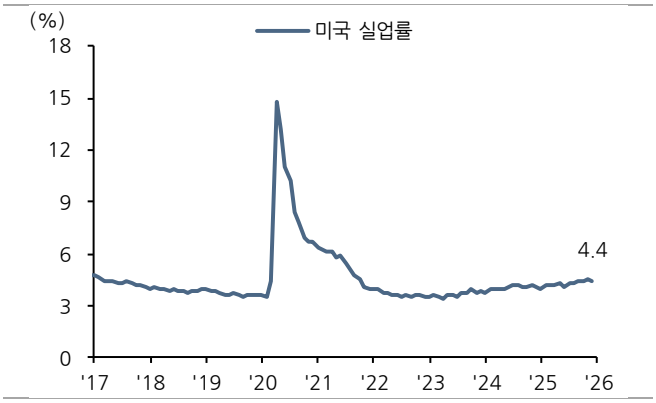
그림 1. 자산별 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부동산원,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지표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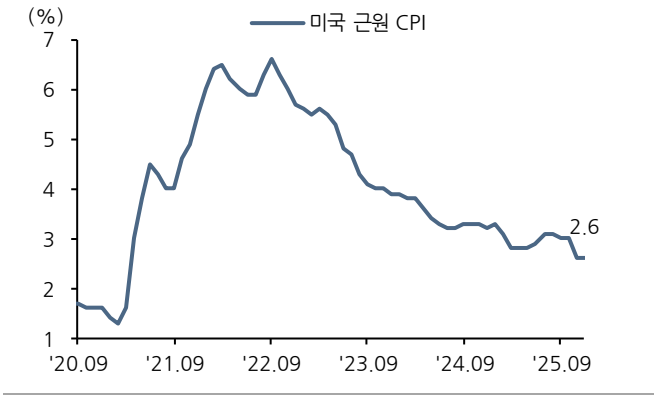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12월 실업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9일(현지시간)에 발표된 12월 실업률은 4.4%로, 시장 예상치(4.5%) 하회. 11월 실업률은 기존 4.6%에서 4.5%로 하향 조정
- 12월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전월 대비 5만명 증가. 하향 조정된 11월 비농업부문 일자리(5만6천명)와 시장 예상치(6만6천명)를 모두 하회
- 시간당 임금은 전년대비 3.8%로 시장 예상치(3.6%)를 상회하며 견조한 상승세 지속
- 고용 증가폭이 미약했으나 시장에서는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따른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확대 전망 속 단기물을 중심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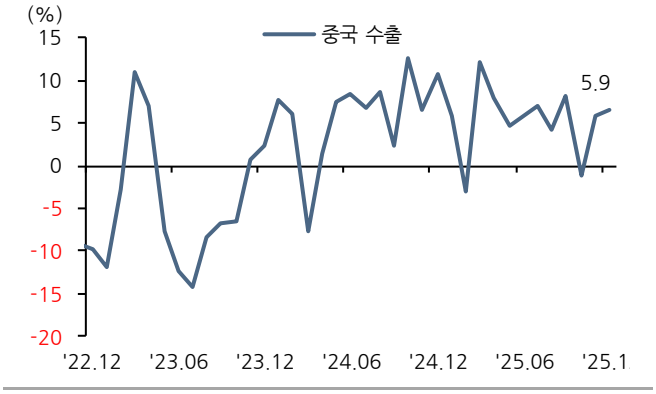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12월 근원 CPI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12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 이는 시장 예상치(2.7%)보다 낮은 수준. 미국 12월 헤드라인 CPI는 2.7%로 전년치와 시장 예상치에 모두 부합
- 세부적으로는 주거비, 의류 가격, 레저 비용 등이 끈적한 물가 지지 요인
-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상보다 관세가 물가에 완만하게 반영됨을 확인
-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며 미국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미 연준에 통화 완화의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

그림 3. 중국 12월 수출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3.1%)와 전월 증가율(5.9%)을 모두 상회
- 미국과의 관세 갈등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였음에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늘린 것이 유효
- 견조한 수출을 바탕으로 2025년 연간 무역 흑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조1,9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이에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 4.5%가 전망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연 5% 성장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 주식

대내외 변수에도 견조하게 상승하는 국내 증시

국내 증시는 성장 모멘텀을 가진 대형주 중심 매수세 유입

KOSPI는 전주대비 +4.61% 상승한 4,797.55pt를 기록하였다. KOSDAQ은 전주대비 +0.34% 상승한 951.16pt를 기록하였다. 금주 한국 증시는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 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하며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말부터 집중되었던 반도체 업종의 매수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차익실현 매물은 자동차, 철강, 건설, 전력기기 등으로 이동하며 전주대비 업종별로는 다소 고르게 온기가 확산되었다. 주중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와 달러-원 환율 재상승, 금통위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Fwd EPS의 상향조정과 함께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업종별 주도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대형주-중소형주 간의 격차는 확대되는 양극화 양상이 확인되었다.
전주 약세를 보였던 KOSDAQ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진행된 가운데 바이오 업종의 약세 흐름이 상대적 수익률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업종별로는 비철/목재(+17.8%), 철강(+13.5%), 자동차(+13.0%)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헬스케어(-3.8%) 섹터는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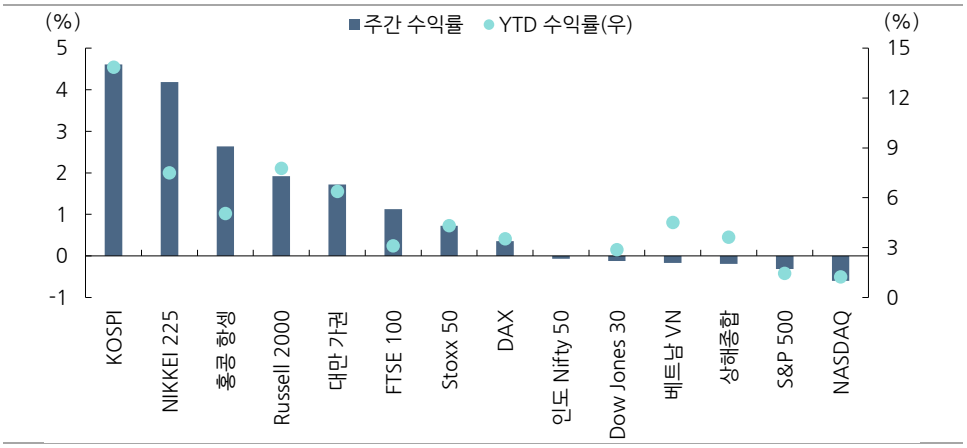
미국 증시는 금융주의 견조한 실적발표에도 트럼프 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하락 마감

S&P 500 지수는 전주대비 -0.31% 하락한 6,944.47pt를 기록하였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주대비 -0.12% 하락한 49,442.44pt를 기록하였다. NASDAQ은 전주대비 -0.60% 하락한 23,530.02pt를 기록하였다. 금주 미국 증시는 금융주 실적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 제한 발표 이후 월가 은행들과의 갈등 소식에 하락했다. 기술주 역시 이란,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및 연준 독립성 우려, 대만 반도체 기업의 2,500억달러 등을 반영, 투심이 위축되며 약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 속 구글 및 캐터필러의 상승, 월마트의 나스닥100 편입, 셰브론 등 에너지주 강세 등은 증시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주중 발표된 12월 CPI의 전망치 부합 소식과 소매판매 호조는 펀더멘털 우려를 경감시켰으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축소시키며 투심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업종별로는 식품/생필품(+4.1%), 음식료/담배(+3.8%), 자본재(+3.3%)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은행(-5.0%), IT SW(-4.5%), 보험(-2.6%) 등에서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규제 소식에 하락, 홍콩 증시는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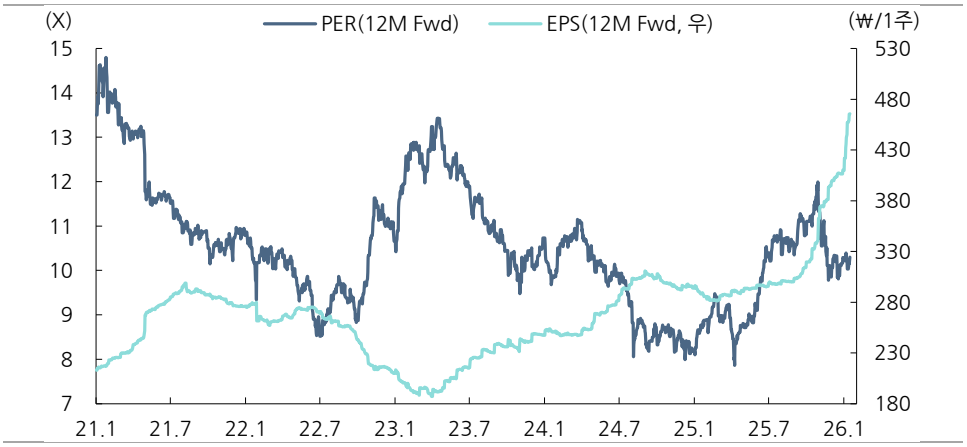
상해종합지수는 전주대비 -0.19% 하락한 4,112.60pt를 기록하였다. 홍콩 항셍 지수는 전주대비 +2.71% 상승한 26,943.29pt를 기록하였다. 금주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우주·항공·기업 중심으로 주 초반 상승세를 시현했으나, 중국 당국의 신용거래 증거금 비율 상향 조정 발표 소식이 유동성을 위축시키며 약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증시 상승에 의한 차익실현 매물 압력 역시 매도세를 유발했다. 그럼에도 위안화 강세와 리튬 가격 상승은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본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홍콩 증시는 주중 알리바바의 AI 에이전트 Qwen 기능 공개 소식과 우시앱텍의 순이익 폭증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다. 상해 증시는 소재(+2.5%), 정보기술(+1.3%), 커뮤니케이션(+1.0%) 등에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반면, 금융(-2.0%), 경기소비재(-1.9%), 필수소비재(-1.2%) 등은 전주대비 하락 마감하였다.

그림 1. 증시별 주간/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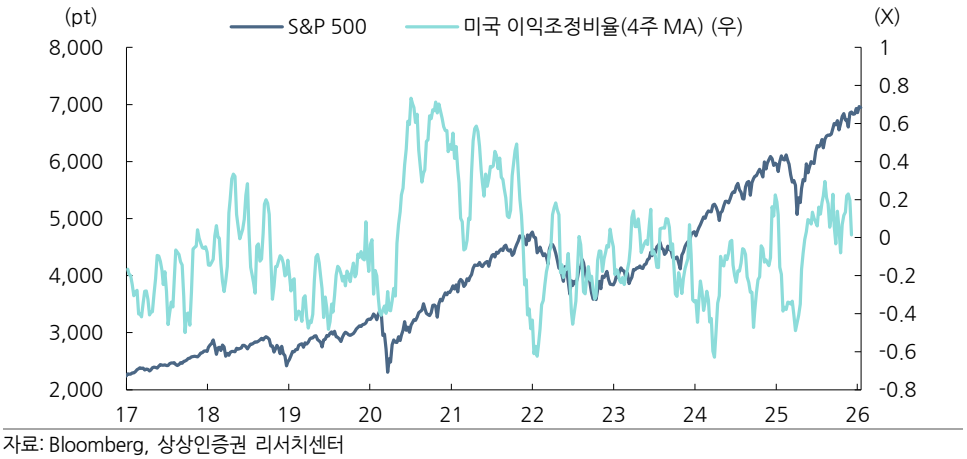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KOSPI 12M Fwd PER,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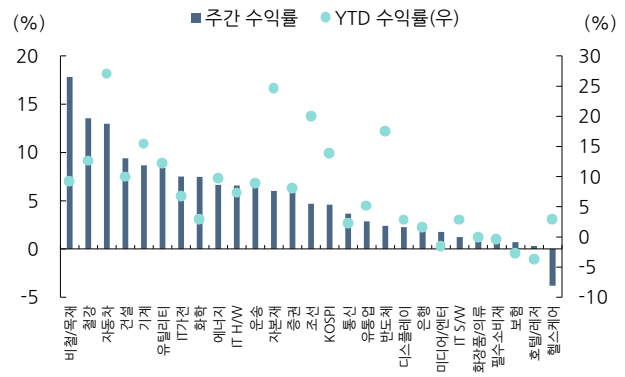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P 500 주가 추이 및 이익조정비율(4주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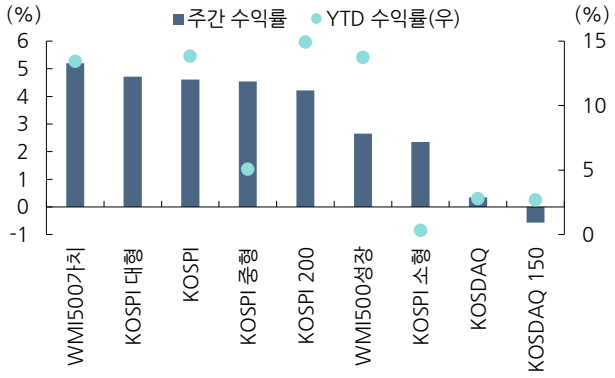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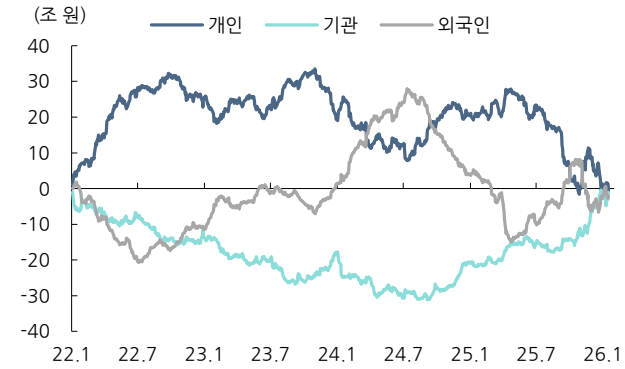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KOSPI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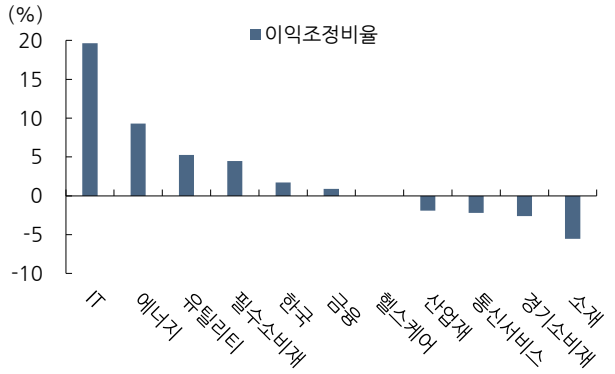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국내 증시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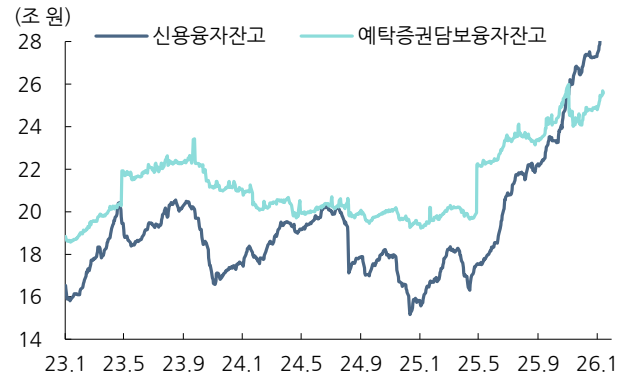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한국 증시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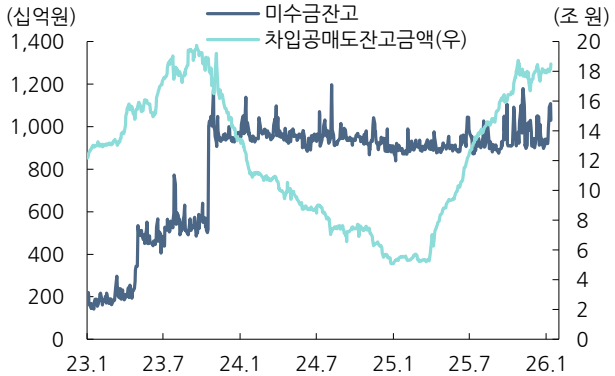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한국 증시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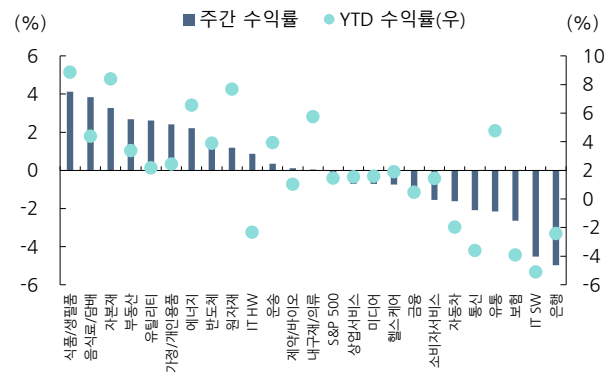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증시 미수금잔고 및 차입공매도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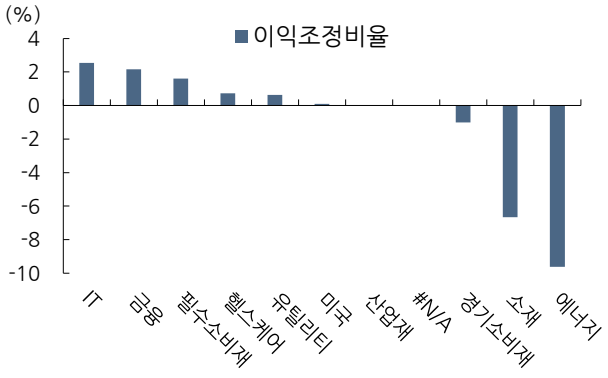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S&P 500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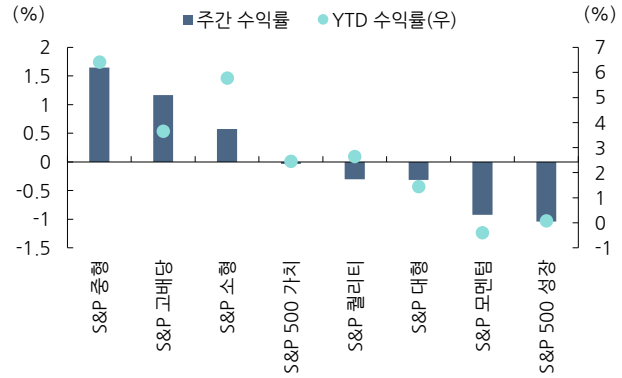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S&P 500 업종별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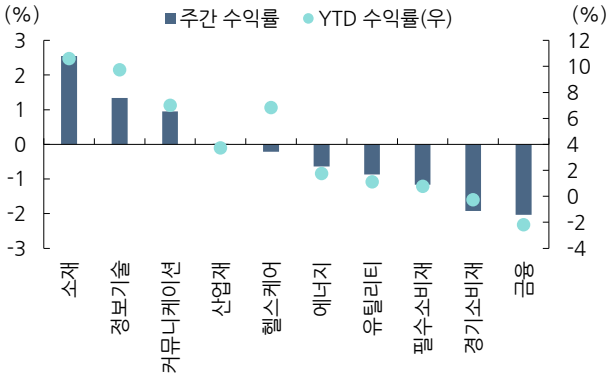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S&P 500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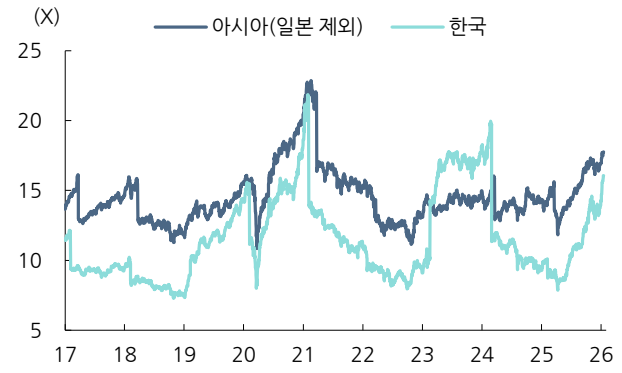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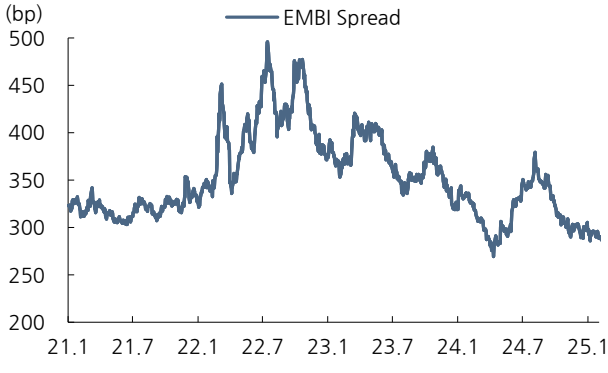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아시아(일본 제외), 한국의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2. 채권

금리 인하 기대감 삭제에 의한 국고 금리 급등

국내 채권시장은 금통위에서 매파적 기조 확인하며 약세 시현

금주 국내 채권시장은 1월 금통위를 대기하며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가 발표되자 전구간 상승했다. 주 초반에는 국고채 3년물 입찰이 예상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자 약세를 시현했다. 주 중반에는 일본 등 주요국의 비우호적인 대외금리의 영향에 약세를 보였다. 또한 외국인 3년 국채선물 순매도 규모 대폭 확대 소식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렸다. 주 후반부에는 금통위를 앞둔 경계감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다가 금통위의 매파적 분위기에 약세를 시현했다. 주간 커브는 베어 플래트닝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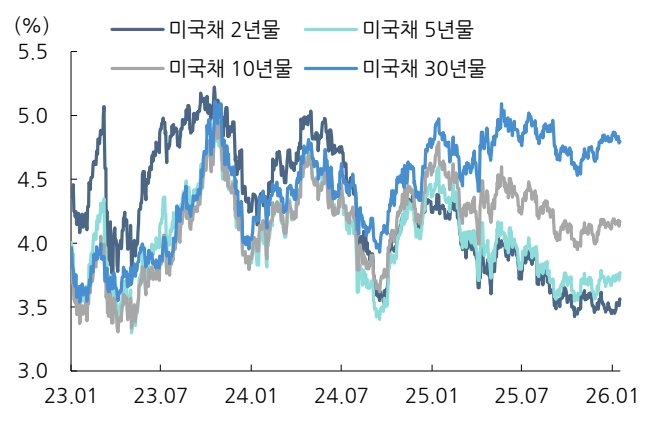
미국 채권시장은 연준의 독립성 우려와 지표 혼조 속 약세 시현

금주 미국 채권시장은 주 초반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 착수로 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확대되며 약세를 시현했다. 다만, 진행 상황을 관망하려는 분위기 속 3년물과 10년물 국채 입찰 호조에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주 중반부에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미국 12월 근원 CPI 결과에 단기물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발생했다. 또한 이란과 관련한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속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며 강세장이 이어졌다. 주 후반부 시장 예상보다 큰 폭 하회한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수에 금리 인하 기대감 약해지며 약세 전환했다. 주간 수익률 곡선은 전주대비 베어 플래트닝을 나타내었다.

그림 1. 주요 만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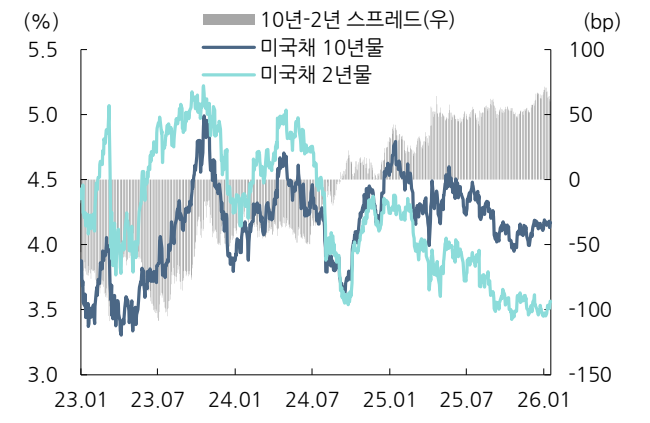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 국채 주요 만기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 국채 장단기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3. 부동산

전세 품귀현상과 지역별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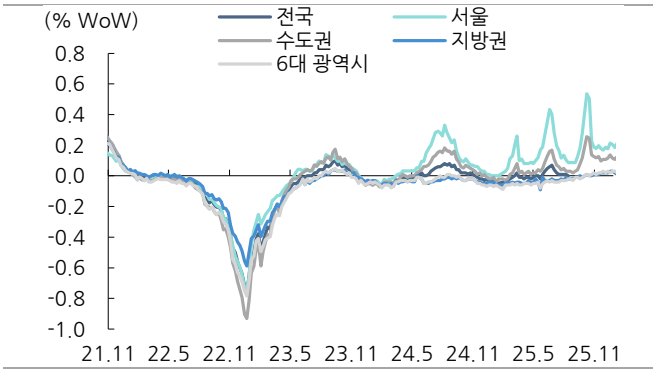
수요 공급의 불균형 이어지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지 주택시장

2026년 1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주대비 +0.06% 상승을 기록했다. 이전 +0.07%과 대비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전세 가격지수는 금주 +0.09%를 기록하면서 전주 +0.08% 대비 상승폭이 재차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승 전환한 가운데 비수도권 심리는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상반된 분위기가 확인되었다. 한편, 15일 한국은행 금위에서는 매파적 금리 동결이 진행되었다.

경기권 주요지역의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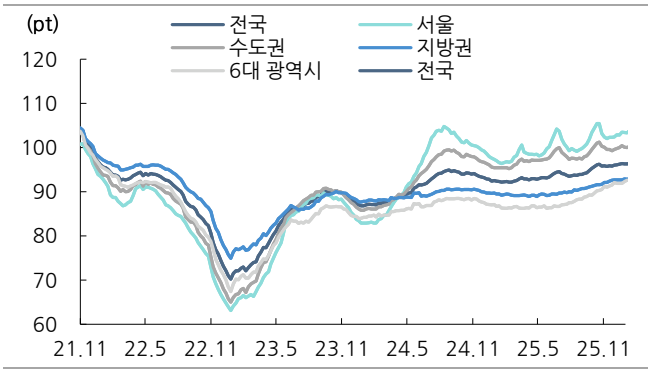
매매시장의 상승 지역은 107개를 기록하며 전주 113개 지역 수 대비 감소했다. 세종시의 등락률은 0.00%로 전주 +0.08% 대비 보합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강북(+0.17%)의 경우 중구(+0.36%), 성동구(+0.32%), 마포구(+0.29%) 등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강남(+0.25%) 역시 동작구(+0.36%), 관악구(+0.30%), 송파구(+0.30%) 등에서 매매지수가 상승하였다. 인천(+0.04%)의 경우 연수구(+0.19%), 계양구(+0.04%), 미추홀구(+0.03%)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경기권에서는 수지구(+0.45%), 분당구(+0.39%), 광명시(+0.37%), 동안구(+0.33%), 하남시(+0.28%) 등 분당·판교 및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림 1.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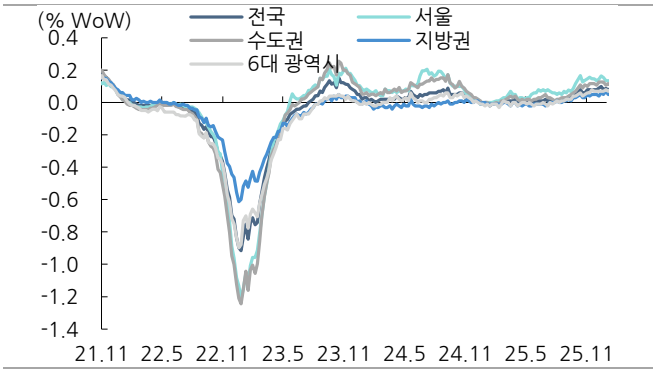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주간 국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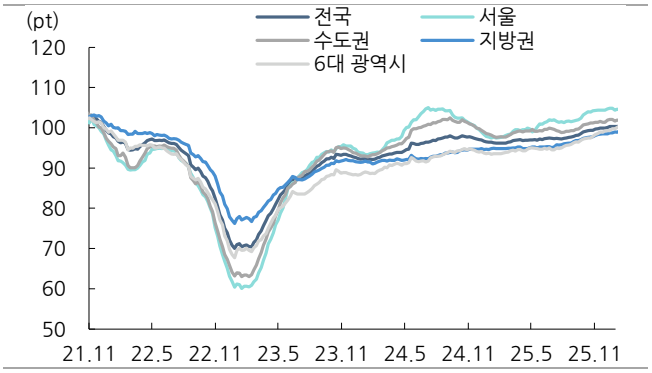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등락률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간 국내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추이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4.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미국 정부의 비호에 $95,000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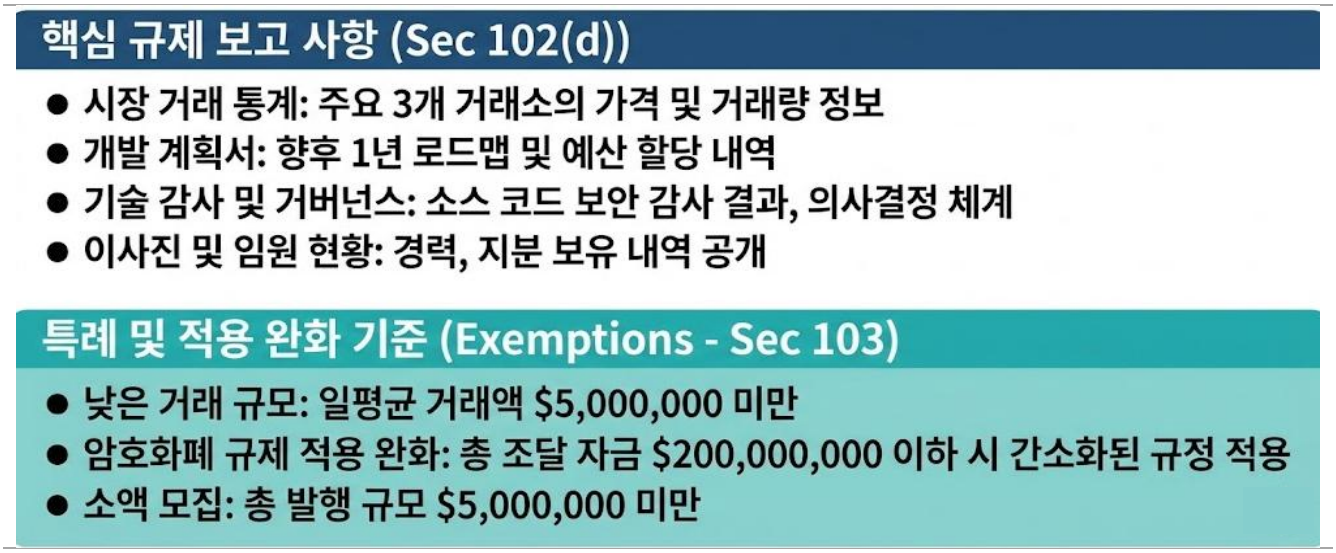
간만에 비트코인이 기분 좋은 한주를 보냈다. 비트코인은 금주 $97,000를 상회하며 +7.2% 급등하였다. 물가 지표 안도: 1월 13일 CPI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어 공격적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심리를 부양하였다. 달러 약세: DXY는 6주 연속 약세를 지속하여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기타 위험자산에 호재로 작용하는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달러의 지속적 약세는 희소하고 비주권적인 자산의 서사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거시적 요소 및 시장의 흐름 보다는 규제 명확성이 비트코인 가격의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 미 연방정부 상원의 CLARITY Act 진전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가시성 완화로 작용했다. 2026년 1월 12일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CLARITY Act)가 공개되었으며,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분류를 공식화하여 비증권 토큰에 대한 미국 관할권을 SEC에서 CFTC로 이전한다. 상원 금융위원회 Tim Scott 의장은 278페이지 분량의 수정안을 1월 12일 공개했으며, 1월 15일 목요일 위원회에서는 표결이 연기되어 코인 관련주는 실망에 반락했으나, 이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 관련 조항은 랫폼이 단순 보유만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되, 거래·결제·송금·DeFi 유동성 공급 등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담고 있다.

GENIUS 법안 행정명령 통과도 한동안 유명무실했으나 2026년 신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명령 이행도 기대되는 점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주로 거래소, 지갑, 결제대행업체, VAN사 등)는 2028년 7월 이후 비준수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최소 1:1 비율의 실물 유동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미 국채 등) 상환정책 공개, 월간 준비자산 구성 증명, 월간 CEO/CFO 보고서 인증 등의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이러한 투명성 요건은 연간 독립 감사를 통해 준비자산을 검증이 이뤄진다. 또한 발행자는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어 KYC 및 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년 1월 15일 BoA CEO 모이니한 대표는 “수익 제공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최대 6조 달러(전체 예금의 30~35%)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LARITY Act에 자체 이자지급 조항이 신설된 이유에는 이러한 은행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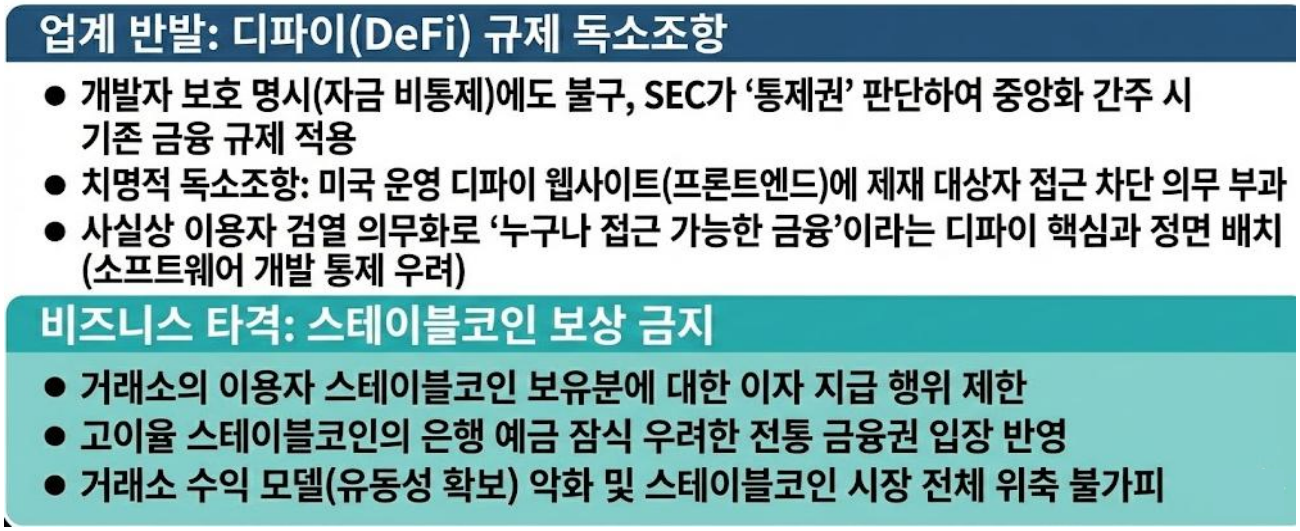
미국 제도권 금융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도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JP Morgan의 블록체인 사업부는 대형은행 최초로 JPM Coin(JPMD)을 자체 네트워크인 Canton Network에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으로 기관 고객들은 24시간 휴일 없이 실시간 블록체인 거래 속도와 은행 발행 예금의 보안을 결합한 디지털 결제가 가능해지며, 2026년 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통합이 진행될 예정이다. BNY Mellon 은행은 고객 예금 잔액의 ‘온체인 미러링’을 활성화하며 예금 토큰화 전략의 첫 단계를 밟았다. 이를 통해 우선 기관 고객들을 위한 온체인 현금 지원을 목표로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장차 시중 은행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편입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되지 않은 저축 계좌"로서의 매력은 줄어들겠지만 전통 은행과의 통합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CLARITY ACT 핵심 규제 내역



자료: CNBC,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Coinbase의 반대로 미 상원은 CLARITY Act 표결을 현지시각 1월 27일로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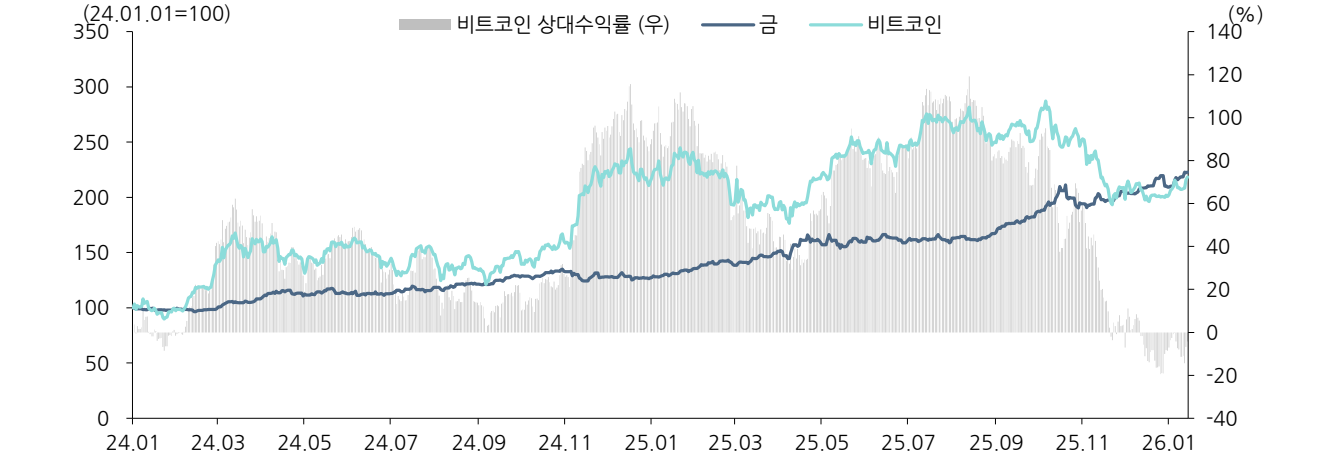
자료: CNBC,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비트코인 약세로 작용했던 원자재 강세, 이번에는 다를까?

최근 금 가격이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자금의 흐름이 은과 구리 등 타 원자재를 거쳐 비트코인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비트코인과 원자재는 직접적인 수익 창출력이 없는 대체투자자산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통상 유동성이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진 자산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 금·은의 급등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의 AI 거품 우려와 채권시장의 달러화 약세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다시금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는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 사이에 나타났던 '에브리띵 랠리'의 연장선상에서 지연된 온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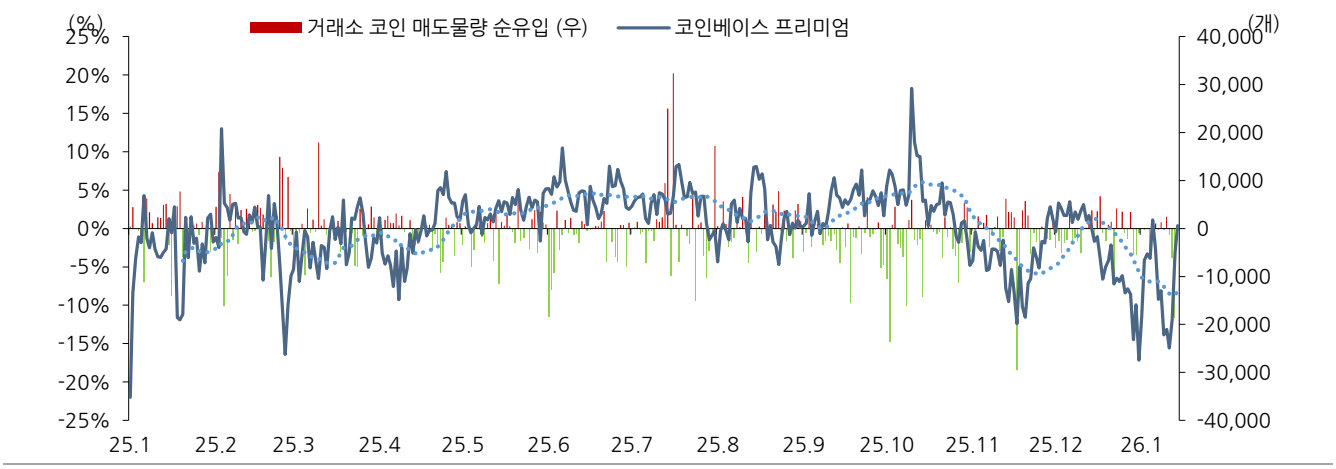
비트코인은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경험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으나, 최근 9만 6,000달러 선을 회복하며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8만 달러 초반까지 급락했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한 이번 반등은 하락에 익숙해진 시장에 환호성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규모 숏 포지션이 청산됨에 따라 이를 약세장의 종결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 강도를 가늠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미국 기관 및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과거 금 가격 랠리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던 비트코인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거래소 코인 유출로 매도 압력은 줄어들었으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음수 유지는 ETF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



자료: Cryptoquant,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또한 비트코인 고래들 역시 본격적인 포지션 복귀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포착된 대규모 축적 신호의 실체가 거래소 내부의 자산 통합 작업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대형 보유자들의 실질적인 매집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네트워크 내부의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채굴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2024년 반감기 이후 블록 보조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채굴 수익성 지표인 해시프라이스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함에 따라, 채굴 난이도는 2025년 이후 처음으로 2회 연속 하락 조정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현재의 강세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태로운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매크로 변수의 변화나 금리 향방에 따라 가격 방향성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으며, 특히 대형 트레이더들의 높은 레버리지 포지션은 모멘텀 둔화 시 연쇄 청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크다. 규제 측면의 불확실성 또한 부담이다.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및 탈중앙화 금융 규제안을 담은 CLARITY Act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에 따라 입법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이는 시장의 제도적 안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에 육박하는 동안 알트코인 시장은 4년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며 자산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숏 포지션의 소진과 2026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기대감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진정한 강세장의 지속 여부는 10만 달러 안착 이후 미국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매수 전환과 규제 환경의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얼, 김경태, 최예찬, 강혜성)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상상인증권
sangsangin securities